

#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11

— 권기수 정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팀장

## I. 거시경제지표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미 8개국	라틴 아메리카
GDP		9.3	2.7	6.3	5.9	3.9	6.8	4.2	4.3	4.0
1인당 GDP	% (연증가율)	8.4	1.8	5.3	4.4	2.7	5.6	2.5	2.7	3.0
소비자물가 상승률		9.8	6.6	3.1	3.4	3.4	3.4	27.1	6.0	6.5
GDP	십억 달러	443	2,476	237	334	1,145	174	336	222	5,802
GDP (구매력 기준)		915	2,220	280	389	1,720	299	376	385	7,123
1인당 GDP	달러	10,880	12,594	13,738	7,121	9,979	5,859	11,423	4,165	9,722
1인당 GDP (구매력 기준)		22,464	11,291	16,271	8,302	14,990	10,021	12,760	7,223	11,935
실업률	%	7.1	6.0	7.1	11.5	5.2	7.7	8.2	6.1	7.7
총외채 (GDP 대비)		31.4	16.1	40.0	20.7	18.3	21.2	24.4	37.0	21.3
수출		84.4	256.0	81.0	57.2	355.8	45.6	92.6	61.6	1,167.4
수입		70.7	226.2	70.2	51.2	354.6	37.3	46.4	13.7	1,073.1
무역수지	십억 달러	13.7	29.8	10.8	6.0	1.2	8.2	46.2	-34.4	94.4
외환보유고		47.5	352.9	38.6	32.7	141.0	48.7	29.3	18.5	761.5
순외국인직접투자 (FDI)		3.9	81.4	5.9	2.6	9.8	7.2	3.6	7.0	130.1
경상수지	%	0.3	-2.1	-1.4	-2.5	-0.6	-1.1	8.1	-6.6	-1.1
재정수지	(GDP 대비)	-1.7	-2.6	2.3	-2.0	-2.4	1.0	-6.1	-2.3	-2.3
정부부채		47.0	40.5	15.4	40.1	33.0	19.5	22.0	35.7	30.8

주1 | 중미 8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주2 | 2011년 나라별 통계의 일부는 각 기관의 추정치  
 자료 | 총외채는 EIU, 외환보유고, 정부부채, 순FDI유입은 CEPAL, 나머지 지표는 Global Insight 참조

## II. 실물경제지표

### 1. GDP

:: 2010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11년 들어 성장세가 주춤  
 | 분기별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10년 2분기 정점(전년 동기 대비 7.0%)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1년 1분기를 기점으로 더욱 가파른 하락세  
 |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0년 4분기 들어 오랜 침체를 벗어나 플러스 성장세로 진입

주요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르헨티나	6.4	12.2	8.7	9.4	9.3	9.4	9.4	9.2
브라질	9.3	8.8	6.9	5.3	4.2	3.3	2.1	1.4
칠레	2.0	6.5	6.6	5.7	9.8	6.8	5.5	3.4
콜롬비아	4.0	4.7	3.3	5.1	4.7	5.1	7.7	5.9
멕시코	4.5	7.8	5.4	4.4	4.4	3.2	4.5	3.7
페루	6.2	10.0	9.6	9.2	8.9	6.8	6.6	5.5
베네수엘라	-4.8	-1.7	-0.2	0.5	4.8	2.6	4.4	4.9
중미 8개국	4.0	4.2	4.7	5.1	4.5	4.8	4.8	4.7
라틴아메리카	5.5	7.0	5.7	4.9	4.9	4.0	4.0	3.2

자료 | Global Insight.

:: 2011년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의 영향에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긴축재정 및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4% 성장에 그침

| 나라별로는 아르헨티나가 9.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페루(6.8%), 칠레(6.3%), 콜롬비아(5.9%) 등이 이음

|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던 베네수엘라 경제도 4.2% 성장세로 전환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양대 성장엔진인 브라질(2.7%)과 멕시코(3.9%) 경제 성장세는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하회

주요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8.7	6.8	0.9	9.2	9.3
브라질	6.1	5.2	-0.3	7.5	2.7
칠레	4.4	3.9	-1.7	5.2	6.3
콜롬비아	6.9	3.5	1.5	4.3	5.9
멕시코	3.3	1.2	-6.2	5.5	3.9
페루	8.9	9.8	0.9	8.8	6.8
베네수엘라	8.8	5.3	-3.2	-1.5	4.2
중미 8개국	6.2	4.2	0.0	4.3	4.3
라틴아메리카	5.4	4.0	-1.8	5.8	4.0

자료 | Global Insight.

2. 산업생산

:: 분기별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산업생산은 2011년 1분기를 기점으로 큰 폭의 성장 둔화세로 반전

| 특히 브라질의 산업생산은 2011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주요국의 분기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르헨티나	9.0	10.1	9.3	10.6	9.3	8.4	5.7	3.4
브라질	18.2	14.3	8.0	3.3	2.8	0.6	0.0	-2.1
칠레	-6.4	1.9	4.4	2.7	11.6	7.4	2.4	0.5
콜롬비아	4.6	7.5	3.5	4.1	5.0	3.3	6.5	4.8
멕시코	4.8	8.2	6.5	5.0	5.4	3.4	3.5	3.2
페루	7.5	16.8	17.4	13.0	12.1	5.6	3.6	0.7
베네수엘라	-10.2	-2.2	2.1	0.2	8.8	1.3	3.0	5.0
중미 8개국	5.7	5.2	2.7	3.2	3.6	4.8	5.0	4.5
라틴아메리카	9.2	9.6	6.9	4.6	5.2	2.3	2.2	0.9

자료 | Global Insight.

:: 2011년 라틴아메리카 전체 산업생산은 2010년의 1/3 수준인 2.5% 증가에 그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칠레(5.3%), 페루(5.3%), 콜롬비아(4.9%), 중미 8개국(4.5%) 등이 그 뒤를 이음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최대 공업국인 브라질의 산업생산은 0.3%로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크게 하회

주요국의 연도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7.5	4.7	0.6	9.7	6.6
브라질	6.0	3.1	-7.4	10.5	0.3
칠레	4.1	0.2	-6.7	0.6	5.3
콜롬비아	10.0	-2.9	-4.7	4.9	4.9
멕시코	2.0	-0.1	-7.7	6.1	3.8
페루	11.1	9.1	-7.2	13.6	5.3
베네수엘라	6.9	1.4	-11.9	-2.5	4.4
중미 8개국	5.6	1.9	-2.6	4.1	4.5
라틴아메리카	5.1	1.9	-6.8	7.5	2.5

자료 | Global Insight.

### 3. 소비

:: 그간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소비도 2010년 4분기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

| 2011년 들어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소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된 데 반해, 칠레,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2011년 4분기 들어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

주요국의 분기별 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르헨티나	6.8	8.7	9.1	11.4	10.8	12.0	11.2	8.7
브라질	8.3	6.2	6.1	7.4	5.7	5.6	3.0	2.1
칠레	7.6	10.8	12.3	10.9	13.4	9.7	5.5	5.9
콜롬비아	4.1	4.2	5.7	6.1	6.1	6.4	7.6	6.9
멕시코	4.2	7.0	4.2	4.7	5.2	4.2	4.9	4.1
페루	5.4	6.0	6.4	6.2	6.4	6.5	6.4	6.1
베네수엘라	-4.9	-1.5	-1.8	0.6	3.5	2.5	4.5	5.4
중미 8개국	2.2	3.4	5.1	5.6	3.8	3.8	3.2	3.9
라틴아메리카	5.5	6.2	5.5	6.4	6.1	5.6	4.8	4.0

자료 | Global Insight.

:: 2011년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소비 증가율은 5%를 기록

- | 나라별로는 201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의 소비 증가율이 10.7%로 가장 높은 성장세 기록
- | 이 밖에 칠레(8.5%), 콜롬비아(6.7%), 페루(6.4%) 등도 높은 소비 증가율 기록
- | 그에 반해 멕시코(4.6%), 브라질(4.1%), 베네수엘라(4%), 중미 8개국(3.6%) 등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의 저조한 소비증가율 기록

주요국의 연도별 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9.0	6.5	0.5	9.0	10.7
브라질	6.1	5.6	4.5	6.9	4.1
칠레	7.0	4.6	0.8	10.4	8.5
콜롬비아	7.3	3.5	0.9	5.0	6.7
멕시코	4.0	1.7	-7.2	5.0	4.6
페루	8.3	8.7	2.4	6.0	6.4
베네수엘라	16.9	6.3	-2.9	-1.9	4.0
중미 8개국	5.6	3.2	-1.5	7.0	3.6
라틴아메리카	6.1	4.4	-0.2	6.0	5.0

자료 | Global Insight.

## 4. 투자

### 1) 투자 증가율

:: 경제성장 둔화를 반영해 201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투자는 2010년보다 증가세가 주춤

|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 투자 증가율은 산업생산 증가율(2.5%), 소비 증가율(5%)을 상회하는 7.7%에 달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가장 큰 성장동력으로 작용

| 나라별로는 아르헨티나의 투자 증가세가 16.6%로 가장 높았음. 이 밖에 콜롬비아(15.3%), 칠레(11.1%), 중미 8개국(10.6%), 페루(9.5%) 등이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높은 투자 증가세를 기록

주요국의 투자증가율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13.7	9.1	-10.2	21.2	16.6
브라질	13.9	13.6	-6.7	21.3	4.7
칠레	11.2	19.4	-15.8	18.5	11.1
콜롬비아	14.4	9.9	-0.8	8.3	15.3
멕시코	6.9	5.9	-11.9	2.4	7.4
페루	22.6	28.3	-8.6	23.0	9.5
베네수엘라	25.6	2.4	-8.3	-6.3	4.4
중미 8개국	17.0	5.9	-17.1	7.5	10.6
라틴아메리카	12.0	10.0	-8.8	12.4	7.7

자료 | Global Insight.

### 2) 외국인직접투자(FDI)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음.

| 그 결과, 2011년 대라틴아메리카 순외국인직접투자(FDI)는 1,30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나라별로는 브라질(814억 달러), 멕시코(98억 달러), 페루(72억 달러), 칠레(59억 달러) 순으로 많은 FDI를 유치

### 3) 투자율

:: 지속적인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201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투자율(GDP 대비)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22.9%를 기록

| 나라별로는 페루가 29.8%로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콜롬비아(27.5%), 아르헨티나(26.4%), 칠레(26.3%) 등이 이음

| 그에 반해 브라질(21.2%), 멕시코(22.3%), 베네수엘라(22.6%) 등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의 낮은 투자 수준을 기록

#### 주요국의 투자율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24.4	25.0	22.2	24.7	26.4
브라질	18.1	19.5	18.3	20.6	21.2
칠레	22.0	25.4	21.7	24.5	26.3
콜롬비아	23.3	24.7	24.2	25.1	27.5
멕시코	21.9	22.8	21.5	21.7	22.3
페루	22.9	27.5	25.0	29.0	29.8
베네수엘라	27.6	25.3	24.0	24.2	22.6
중미 8개국	21.0	22.1	20.5	21.9	22.9
라틴아메리카	94,265	99,819	70,414	75,052	130,120

자료 | CEPAL

## 5.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1)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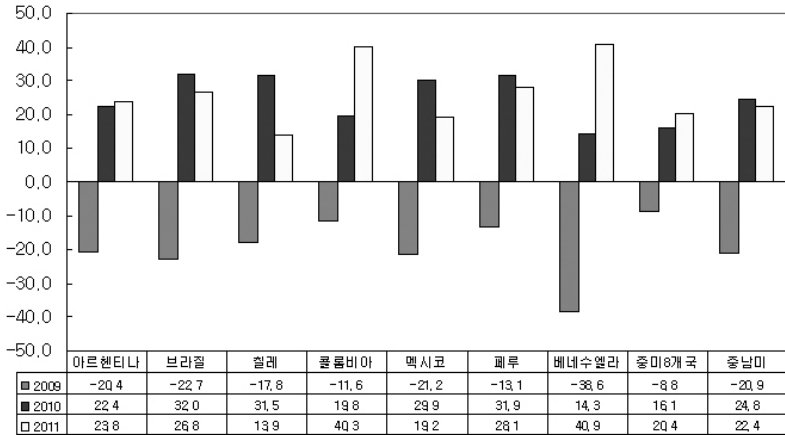
:: 유럽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 201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출은 2010년에 이어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나라별로는 베네수엘라가 40.3%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콜롬비아도 40%대의 수출 증가세 달성

| 이 밖에 페루(28.1%), 브라질(26.8%), 아르헨티나(23.8%)도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세 기록

###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2011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수출을 달성

| 나라별로는 멕시코가 3,558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560억 달러), 베네수엘라(926억 달러), 아르헨티나(844억 달러), 칠레(810억 달러) 등이 이음.

###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55.7	70.0	55.7	68.2	84.4
브라질	160.6	197.9	153.0	201.9	256.0
칠레	67.9	65.7	54.0	71.1	81.0
콜롬비아	30.6	38.5	34.1	40.8	57.2
멕시코	271.9	291.3	229.7	298.5	355.8
페루	28.1	31.0	27.0	35.6	45.6
베네수엘라	69.3	93.7	57.5	65.7	92.6
중미 8개국	44.8	48.3	45.1	50.9	61.6
라틴아메리카	838.8	966.3	764.3	953.7	1,167.4

자료 | Global Insight.



## 2)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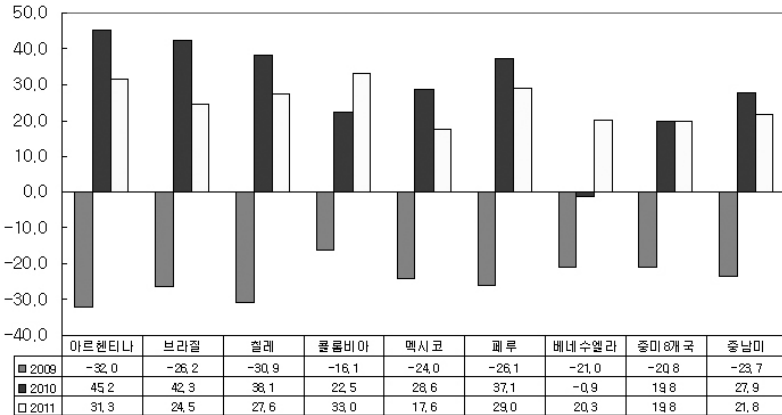
::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수입 증가세는 20%대를 기록했으나 그 증가세는 전년 보다 다소 주춤

| 나라별로는 콜롬비아의 수입 증가세가 33%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아르헨티나도 31%로 높은 증가세 기록

| 이 밖에 페루(29%), 칠레(27.6%), 브라질(24.5%) 등도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수입 증가세 기록

주요국의 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높은 수입 증가세를 반영해 201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

| 나라별로는 멕시코가 3,546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262억 달러), 아르헨티나(707억 달러), 칠레(702억 달러), 콜롬비아(512억 달러) 등이 이음.

###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42.4	54.5	37.1	53.8	70.7
브라질	120.6	173.1	127.7	181.8	226.2
칠레	43.8	57.6	39.8	55.0	70.2
콜롬비아	31.1	37.5	31.5	38.5	51.2
멕시코	281.9	308.6	234.4	301.5	354.6
페루	19.7	28.6	21.1	28.9	37.3
베네수엘라	45.7	49.3	39.0	38.6	46.4
중미 8개국	10.3	11.9	9.5	11.4	13.7
라틴아메리카	750.7	902.7	688.9	881.2	1,073.1

자료 | Global Insight.

### 3)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무역수지는 2011년에도 큰 폭의 흑자 실현

| 2011년 무역흑자는 2000년대 들어 최고치인 944억 달러를 기록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가 462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98억 달러), 아르헨티나(137억 달러), 칠레(108억 달러) 등이 이음.

|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 반해 중미8개국은 344억 달러의 무역적자 기록

###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13.3	15.5	18.6	14.3	13.7
브라질	40.0	24.8	25.3	20.2	29.8
칠레	24.1	8.1	14.2	16.1	10.8
콜롬비아	-0.5	1.0	2.6	2.3	6.0
멕시코	-10.1	-17.3	-4.7	-3.0	1.2
페루	8.4	2.5	5.9	6.6	8.2
베네수엘라	23.5	44.3	18.5	27.1	46.2
중미 8개국	-27.4	-35.1	-21.2	-28.9	-34.4
라틴아메리카	88.1	63.6	75.4	72.4	94.4

자료 | Global Insight.

::201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1%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만이 흑자를 기록
- |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2.5%), 브라질(-2.1%), 칠레(-1.4%) 등이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2.7	2.1	3.6	0.8	0.3
브라질	0.1	-1.7	-1.5	-2.2	-2.1
칠레	4.7	-1.9	1.5	1.9	-1.4
콜롬비아	-2.9	-2.7	-2.1	-3.0	-2.5
멕시코	-0.9	-1.5	-0.7	-0.5	-0.6
페루	1.4	-4.2	0.2	-1.5	-1.1
베네수엘라	7.5	10.9	2.0	5.3	8.1
중미 8개국	-6.6	-9.2	-2.6	-5.9	-6.6
라틴아메리카	0.3	-0.7	-0.4	-1.1	-1.1

자료 | Global Insight.

## 6. 정부지출, 재정수지 및 공공부채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2011년 들어 정부지출을 축소함에 따라 최근 5년 사이 정부 지출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 2010년 4.3%에 달했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2011년 2.7%에 그침.
- | 나라별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아르헨티나(10.9%)와 페루(4%)에서 정부지출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정부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7.6	6.9	7.3	9.4	10.9
브라질	5.3	3.2	3.0	4.3	2.0
칠레	7.2	0.5	7.5	3.2	3.3
콜롬비아	6.0	3.3	3.5	4.6	1.8
멕시코	3.1	1.1	3.8	2.8	0.9
페루	4.5	2.1	16.5	10.6	4.0
베네수엘라	13.8	4.8	1.5	2.1	5.7
중미 8개국	5.5	5.5	4.1	5.2	1.9
라틴아메리카	5.3	3.0	3.9	4.3	2.7

자료 | Global Insight.

::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에 힘입어 2011년 재정수지는 2010년에 비해 소폭 개선

| 2011년 재정수지 적자(GDP 대비)는 2010년에 비해 0.4%포인트 개선된 -2.3% 기록

| 나라별로는 칠레(2.3%)와 페루(1%)가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건실한 재정을 운영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6.1%), 브라질(-2.6%), 멕시코(-2.4%) 등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재정적자 기록

###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1.2	1.4	-0.6	0.2	-1.7
브라질	-2.8	-2.0	-3.3	-2.5	-2.6
칠레	9.9	6.3	-4.6	-1.7	2.3
콜롬비아	-2.8	-1.7	-3.7	-3.5	-2.0
멕시코	0.1	-0.6	-2.8	-3.3	-2.4
페루	3.1	2.1	-1.6	-0.5	1.0
베네수엘라	-2.5	-3.7	-9.8	-10.4	-6.1
중미 8개국	0.0	-1.1	-2.7	-2.8	-2.3
라틴아메리카	-1.1	-1.1	-3.7	-2.7	-2.3

자료 | Global Insight.

:: 재정수지 개선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공공부채(GDP 대비)도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2011년 공공부채 규모는 2010년에 비해 1.8%포인트 감소한 30.8% 기록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은 공공부채(47%, GDP 대비 기준)를 갖고 있음.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공공부채가 적은 국가는 칠레(15.4%)로 밝혀짐.

### 주요국의 비금융권 공공부채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66.7	57.8	57.7	52.0	47.0
브라질	45.5	38.5	42.8	40.7	40.5
칠레	9.1	12.0	12.9	15.8	15.4
콜롬비아	43.8	42.6	44.8	45.8	40.1
멕시코	22.7	26.9	34.9	34.1	33.0
페루	27.2	24.5	23.8	21.7	19.5
베네수엘라	19.1	14.0	18.2	18.3	22.0
중미 8개국	33.6	32.0	33.6	32.6	30.8
라틴아메리카	0.3	-0.7	-0.4	-1.1	-1.1

자료 | Global Insight.

## 7. 실업률

:: 경기후행지수 성격을 갖고 있는 실업률은 2010년의 신속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2011년에는 7.7%로 하락함.

:: 나라별로는 콜롬비아가 11.5%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8.2%), 페루(7.7%) 등이 이음.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멕시코가 가장 낮은 실업률(5.2%)을 기록

###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8.5	7.9	8.7	7.7	7.1
브라질	9.3	7.9	8.1	6.8	6.0
칠레	7.1	7.8	9.6	8.2	7.1
콜롬비아	11.6	11.5	12.9	12.5	11.5
멕시코	3.7	4.0	5.5	5.4	5.2
페루	8.4	8.4	8.4	7.9	7.7
베네수엘라	8.5	7.3	7.9	8.5	8.2
중미 8개국	5.4	5.2	6.9	6.8	6.1
라틴아메리카	8.0	7.5	8.5	8.5	7.7

자료 | Global Insight.



### III. 금융·외환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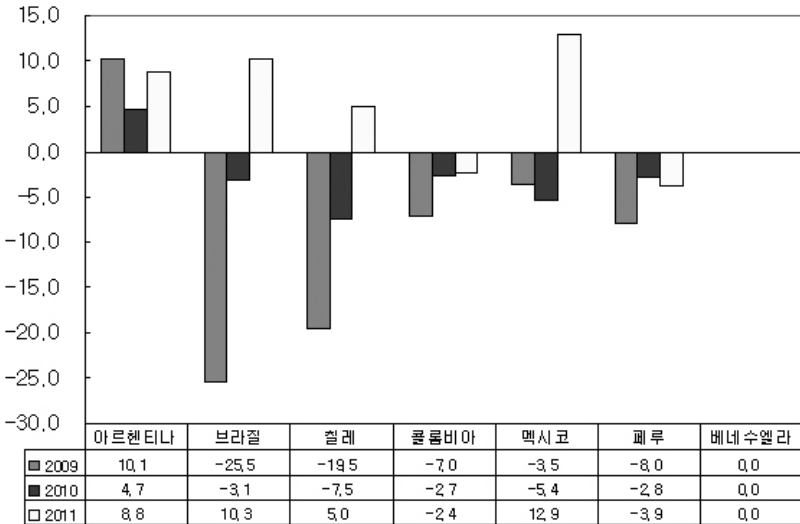
#### 1. 환율

:: 유럽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환율은 2011년 들어 약세로 전환

| 나라별로는 멕시코(12.9%), 브라질(10.3%), 아르헨티나(8.8%), 칠레(5%) 순으로 큰폭의 환율 상승 기록  
| 그에 반해 페루와 콜롬비아의 환율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하락세 지속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을 의미  
자료 | 각국 중앙은행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3.13	3.43	3.78	3.96	4.30
브라질	1.77	2.34	1.74	1.69	1.86
칠레	495.82	629.11	506.43	468.37	491.98
콜롬비아	1,987.81	2,198.09	2,044.23	1,989.88	1,942.70
멕시코	10.87	13.54	13.06	12.36	13.95
페루	3.00	3.14	2.89	2.81	2.70
베네수엘라	1.00	1.00	1.00	1.00	1.00

자료 |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2011년 들어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물가상승 압박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전체적인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

| 2011년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단기금리(연율 기준)는 9.9%로 2010년 대비 0.9%포인트 상승

| 나라별로는 브라질의 단기금리가 1.9%포인트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이 이음.

|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크지 않은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미 8개국 등에서 금리는 하락세를 기록

주요국의 단기금리(연율 기준)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8.0	11.0	11.6	9.2	10.7
브라질	12.0	12.4	10.1	9.8	11.7
칠레	13.6	15.2	12.9	11.8	12.4
콜롬비아	8.0	9.7	6.1	3.7	4.2
멕시코	7.2	7.7	5.4	4.4	4.2
페루	22.9	23.7	21.0	19.0	18.7
베네수엘라	16.7	22.8	20.6	18.0	17.4
중미 8개국	10.4	10.9	11.1	9.5	9.3
라틴아메리카	10.5	11.8	10.1	9.0	9.9

자료 | Global Insight.



### 3. 소비자물가상승률

:: 식료품, 석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2011년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소비자 물가는 2010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가 27%로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 통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9.8%)을 기록  
|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멕시코에서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소폭 하락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8.8	8.6	6.3	10.5	9.8
브라질	3.6	5.7	4.9	5.0	6.6
칠레	4.4	8.9	2.3	1.4	3.1
콜롬비아	5.5	7.0	4.2	2.3	3.4
멕시코	4.0	5.1	5.3	4.2	3.4
페루	1.8	5.8	2.9	1.5	3.4
베네수엘라	18.7	31.5	28.6	29.1	27.1
중미 8개국	6.4	11.1	2.8	3.9	6.0
라틴아메리카	5.2	7.8	6.4	6.0	6.5

자료 |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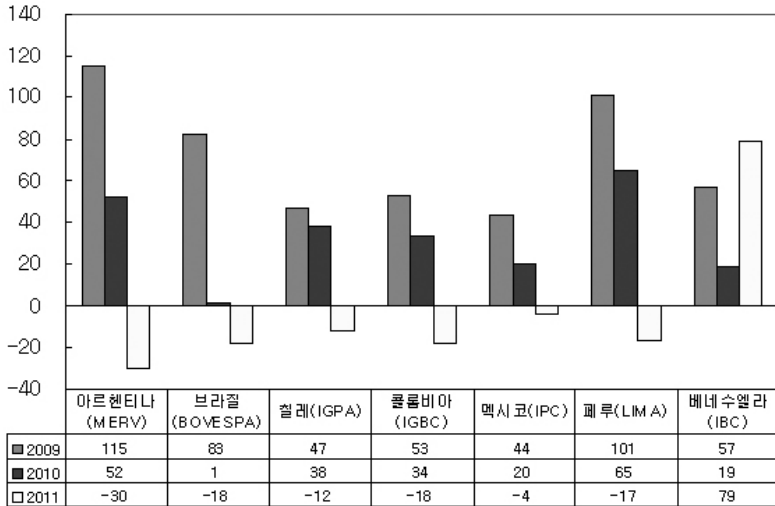
### 4. 주가

::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와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세 둔화로 2011년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

| 나라별로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주요국의 모든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특히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전년 대비 30% 하락), 브라질(-18%), 콜롬비아(-18%), 페루(-17%)의 주가 하락세가 현저

주요국의 주가변동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Bloomberg.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MERY)	2,152	1,080	2,318	3,524	2,463
브라질(BOVESPA)	63,886	37,550	68,588	69,305	56,754
칠레(IGPA)	14,076	11,324	16,631	22,979	20,130
콜롬비아(IGBC)	10,694	7,561	11,569	15,497	12,703
멕시코(IPC)	29,537	22,380	32,120	38,551	37,078
페루(LIMA)	17,525	7,049	14,167	23,375	19,475
베네수엘라(IBC)	37,904	35,090	55,081	65,338	117,036

자료 | Global Insight.

## 5. 외환보유고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무역흑자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 기록

| 2011년 말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총 외환보유고는 7,61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나라별로는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 전체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 수준인 3,529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멕시코(1,410억 달러), 페루(487억 달러), 아르헨티나(475억 달러) 등이 이음.

|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는 외채상환 등의 이유로 2010년 대비 약 50억 달러로 감소

###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르헨티나	45,711	46,198	47,967	52,145	47,523
브라질	180,344	193,783	238,520	288,575	352,928
칠레	16,910	23,162	25,371	27,864	38,673
콜롬비아	20,607	23,672	24,992	28,464	32,746
멕시코	87,211	95,302	99,893	120,587	141,088
페루	27,720	31,233	33,175	44,150	48,765
베네수엘라	34,288	43,127	35,830	27,911	29,302
중미 8개국	16,492	17,414	19,251	20,969	18,544
라틴아메리카	459,305	512,398	567,227	655,106	761,519

자료 | CEPAL

## 6. 국가신용등급

::2012년 4월 말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임.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투자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등은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성과를 거둠.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은 세 기관 모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음.

###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12년 4월 말 기준)

발행자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멕시코	Baa1 2005-01-06	안정 2005-01-06	BBB 2009-12-14	안정 2009-12-14	BBB 2009-11-23	안정 2009-11-23
베네수엘라	B2 2009-01-15	안정 2009-01-15	B+ 2011-08-19	안정 2011-08-19	B+ 2011-04-11	부정 2012-04-04
볼리비아	B1 2010-12-02	긍정 2010-12-02	B+ 2011-05-19	긍정 2011-08-22	B+ 2010-10-05	안정 2010-10-05
브라질	Baa2 2011-06-20	긍정 2011-06-20	BBB 2011-11-17	안정 2011-11-17	BBB 2011-04-04	안정 2011-04-05
아르헨티나	B3 2005-06-29	안정 2005-06-29	B 2010-09-13	부정 2012-04-24	B 2010-07-12	안정 2010-07-12
에콰도르	Caa2 2011-02-01	안정 2009-09-24	B- 2010-08-02	긍정 2011-08-04	B- 2009-09-04	안정 2009-09-04
칠레	Aa3 2010-06-16	안정 2010-06-16	A+ 2007-12-18	긍정 2010-12-16	A+ 2011-02-01	안정 2008-11-10
코스타리카	Baa3 2010-09-09	안정 2010-09-09	BB 2005-06-10	안정 2008-10-10	BB+ 2011-03-04	안정 2000-05-19
콜롬비아	Baa3 2011-05-31	안정 2011-05-31	BBB- 2007-06-12	안정 2011-03-16	BBB- 2011-06-22	안정 2011-06-22
파나마	Baa3 2010-06-09	긍정 2011-08-04	BBB- 2010-05-25	긍정 2011-07-21	BBB 2011-06-02	안정 2011-06-02
페루	Baa3 2009-12-16	긍정 2011-03-21	BBB 2011-08-30	안정 2011-08-30	BBB 2011-11-10	안정 2011-11-10

주 | 검은색 음영은 투자적격 등급을 의미  
자료 | Moody's, S&P, Fitch.

## IV. 기타 지표

### 1.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18개국 중에서는 칠레가 비즈니스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

| 이 밖에 파나마(2위), 페루(3위), 멕시코(4위), 우루과이(5위) 등도 비즈니스환경이 양호한 국가군으로 분류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등은 비즈니스환경이 매우 열악한 국가군으로 평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환경(Latin Business Index 2012)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20.91
2	동일	파나마	19.3
3	1	페루	18.23
4	1	멕시코	17.75
5	-2	우루과이	17.39
6	2	코스타리카	17.18
7	-1	콜롬비아	16.95
8	4	파라과이	16.36
9	동일	브라질	15.94
10	-3	도미니카공화국	15.86
11	-1	과테말라	15.83
12	3	에콰도르	15.26
13	동일	니카라과	15.07
14	-3	엘살바도르	14.98
15	-1	볼리비아	14.86
16	1	온두라스	14.65
17	-1	아르헨티나	14.42
18	동일	베네수엘라	4.67
라틴아메리카 평균			15.87

주 |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환경 지수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거시경제환경, 기업환경, 글로벌라이제이션 및 경쟁력, 인프라발전 수준, 정치환경 등 5개 변수를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2.4).

## 2. 라틴아메리카 인프라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18개국 중에서는 파나마가 인프라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

| 파나마에 이어서는 칠레(2위), 우루과이(3위), 아르헨티나(4위), 엘살바도르(5위) 등이 인프라환경이 양호한 국가군으로 분류

| 그에 반해 니카라과,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인프라환경이 매우 열악한 국가로 평가

### 라틴아메리카 인프라환경(Latin Infrastructure Index 2011)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파나마	73.1
2	동일	칠레	67.75
3	동일	우루과이	66.65
4	1	아르헨티나	58.23
5	-1	엘살바도르	56.76
6	2	멕시코	55.22
7	-1	과테말라	55.00
8	-1	브라질	53.14
9	4	페루	53.14
10	동일	코스타리카	53.02
11	3	도미니카공화국	52.65
12	-1	온두라스	52.48
13	동일	에콰도르	52.31
14	-5	콜롬비아	50.15
15	2	베네수엘라	45.90
16	-1	볼리비아	44.71
17	-1	파라과이	43.26
18	동일	니카라과	42.34
라틴아메리카 평균			54.21

주 | 라틴아메리카 인프라환경 지수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교통, 기술인터넷, 통신 등, 상수도, 전력 인프라 등에서 24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1.11).

### 3. 라틴아메리카 치안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19개국 중에서 치안이 가장 위험한 국가는 아이티로 평가

| 이 밖에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도 치안이 매우 위험한 국가군으로 분류  
| 그에 반해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

라틴아메리카 치안환경(Latin Security Index 2012)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지수(1-5)
1	동일	아이티	5
2	동일	베네수엘라	5
3	동일	온두라스	5
4	동일	엘살바도르	5
5	동일	과테말라	5
6	동일	멕시코	4
7	1	브라질	4
8	-1	볼리비아	4
9	동일	콜롬비아	4
10	1	파라과이	3
11	2	페루	3
12	동일	에콰도르	3
13	1	도미니카공화국	3
14	-4	니카라과	3
15	동일	아르헨티나	3
16	동일	파나마	3
17	동일	우루과이	2
18	동일	칠레	2
19	동일	코스타리카	2
라틴아메리카 평균			3.58

주 |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지수 1 = 안전한 국가, 5 = 매우 위험한 국가  
자료 | FTI Consulting Ibero America(2012.3)

#### 4. 라틴아메리카 노동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18개국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노동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이 밖에 멕시코(2위), 과테말라(3위), 파나마(4위), 아르헨티나(5위)도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노동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에 반해 온두라스(18위), 볼리비아(17위), 파라과이(16위) 등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

라틴아메리카 노동환경(Latin Labor Index 2011)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329.0
2	동일	멕시코	278.1
3	동일	과테말라	213.2
4	동일	파나마	200.6
5	동일	아르헨티나	193.8
6	1	콜롬비아	185.6
7	-1	우루과이	185.5
8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79.3
9	1	페루	172.7
10	-1	코스타리카	170.0
11	동일	니카라과	165.1
12	동일	엘살바도르	165.0
13	동일	베네수엘라	164.8
14	동일	에콰도르	146.9
15	동일	브라질	146.4
16	동일	파라과이	142.8
17	동일	볼리비아	134.0
18	동일	온두라스	123.5
라틴아메리카 평균			183.1

주 | 라틴아메리카 18개국에서 모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변수를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1.11).



## 5. 라틴아메리카 세제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18개국 중에서는 칠레가 세제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

- | 칠레에 이어 파라과이(2위), 엘살바도르(3위), 도미니카공화국(4위), 온두라스(5위)도 세제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18위), 볼리비아(17위), 아르헨티나(16위) 순으로 세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

### 라틴아메리카 세제환경(Latin Tax Index 2011)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7.45
2	동일	파라과이	7.96
3	1	엘살바도르	9.73
4	-1	도미니카공화국	9.90
5	동일	온두라스	10.04
6	2	우루과이	10.59
7	-1	과테말라	10.87
8	-1	페루	10.91
9	동일	코스타리카	11.64
10	2	멕시코	12.15
11	동일	니카라과	12.18
12	-2	에콰도르	12.65
13	동일	파나마	13.20
14	동일	콜롬비아	13.45
15	동일	베네수엘라	18.00
16	동일	아르헨티나	18.94
17	동일	볼리비아	21.72
18	동일	브라질	36.40
<b>라틴아메리카 평균</b>			<b>13.77</b>

주 | 라틴아메리카 세제환경 지수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법인세율, 이윤세율, 세금 납부 시간, 세금 종류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1.6).